

청년아, 너의 판타지를 구해주지는 못하는데, 빈집이라도 잠깐 살래?

MBC <빈집 살래 in 서울 확장판> 비평

범문영

들어가며

“젊음, 열정, 패기.”

청년 하면 흔히 떠올리는 관념은 지독하리만큼 사회에 깊게 박혀 있다. 청년들이 안타깝지만, 열정과 패기를 가져야만 하고 이 고통도 청년이니까 겪을 수 있는 거라 말하는 저명한 중장년 인사들의 말은 일찍이 “아프면 아픈 거지, 왜 청년이 아파야 해?”라는 사회적 밈(meme)으로까지 승화되었다. 청년이 열정과 패기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는 이미지는 고루하다. 새로움과 재미를 적절히 섞어 성공적인 효능감을 주는 방송을 끝없이 찾아나가는 시청자 입장에서, 너털너털하고 해묵은 관념과 이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건 결코 유쾌하지 않다. 기획 의도에

담긴 선의는 퇴색하고, 방송의 재미는 반감된다.

그렇기에 MBC의 〈빈집 살래 in 서울 확장판〉(이하 〈빈집 살래〉)이 남긴 끝맛이 불쾌하다. 시작은 분명 ‘집방’의 홍수 시대에서 ‘빈집’이라는 특특한 키워드를 잡아낸 창의적인 방송이었다. 1화와 2화에서 나타난 가혹한 현실은 방송의 판타지적 재미는 조금 반감되더라도 현실성을 부각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3화에 나타난 ‘청년’과 ‘집’을 풀어낸 이야기는 경악과 분노를 자아냈다. 방송 제작 배경에 자리한, ‘청년’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이 결코 생취할 수 없는 ‘집’과 만나며 감정적 효용도, 실리적 효용도 갖출 수 없는 고통 어린 뒷맛을 남겼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엷힌 ‘집’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화 이전까지 피지배층에게 거주란 일종의 족쇄였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갑오개혁 전까지 향·부곡·소의 일원과 농민 등 피지배층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내 거주지’를 ‘내 마음’대로 정하게 된 역사는 130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다.

짧은 역사 때문일까, 거주·이전의 적극적 자유 실현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인다. 소극적 자유야 대체로 보장된다고 하지만 거주와 이전에 있어 개인의 ‘삶’, ‘나’는 배제되어 있다. 집이 없는 이들은 집값이 올라 쉽게 이동하지 못하고, 이동하고 싶지 않아도 이동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처한다. 거주지를 정할 때도 예산에 맞게 골라야만 하니, 열악한 교통과 좁은 공간, 불안한 치안쯤은 감수해야 한다. 거주지 자체를 옮길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확보되었으나 그 안에서 ‘나’를 찾는 적극적 자유의 길은 멀기만 하다.

거주지, 그리고 그 종착역인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곧 ‘나’를 찾고자 하는 욕망과도 맞닿는다.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는 오롯한 삶을 갖기에 집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기본적이고도 근원적인 욕망 실현은 최근 2년 동안 아득히 멀어지기만 했다. 사회의 들끓는 욕구를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잡아내야 하는 방송에 ‘집’ 열풍이 분 것도 당연하다.

2019년부터, 방송은 집에 대한 욕구, 확장하자면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나를 찾기 위한 욕구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 그야말로 집에 대한 방송, 즉 집방의 홍수 시대가 도래했다. 건축가와 건축주의 삶과 생각을 담아낸 완성품으로서 집을 보여준 EBS〈건축탐구 집〉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준 MBC〈구해줘, 홈즈!〉가 집방의 시작을 알렸다면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집이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SBS〈나의 판타집〉, 집 자체를 살 순 없지만 집을 자신에게 맞게 바꿔보자는 tvN〈신박한 정리〉와 자산 증식 영역에 한 발 걸친 SBS FIL·TV조선의〈홈데렐라〉는 일종의 응용편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빈집 살래〉는 앞서 나온 모든 영역을 적절히 조화시키려 한 프로그램이다. 서울 시내, 예산 안에서, 내가 꿈꾸는 요소들을 적절히 섞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혹’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빈집을 사서(buy)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live)간다는 매력적인 기획이었다.

‘집’을 꿈꿀 수 없는 이, 청년

그러나 이 술한 집 방송들 안에서 ‘일반인 청년’은 찾기 어렵다. 청년들은 방송에서마저 욕망을 꿈꿀 수 없다. 그들은 연예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릴 수 없고, 집을 지을 자본도 없다. 간혹 <구해줘, 홈즈!>에 청년들이 나오지만 여럿이 모여 예산을 어떻게든 높였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패널들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 반드시 나온다. 교통·치안·공간 중 하나 이상이 아득할 정도로 현실적인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그마저도 출연자가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인 경우는 127회 내에서도 손에 꼽는다. 연예인 청년이 나오는 ‘판타집’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든 살 만한 집을 ‘구해’달라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본의 지배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일수록 거주·이전의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의탁이 어렵고 거주지의 자유를 실현할 만큼의 자산은 가질 수 없는 청년층이 가장 심하게, 오래 부자유의 족쇄에 매여 있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일자리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기이한 구조를 고려해 보면, 청년층은 끌어올릴 돈은 없지만 가장 비싼 서울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지·옥·고’(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전전하게 된다. 거주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욕망조차 거세된 이들이 청년이다.

<빈집 살래> 3화는 적어도 이 부분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초반에 나오는 ‘지·옥·고’에 대한 설명과 청년을 안타까이 여기는 패널들의 발언은 시청자의 공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후 등장하는 경쟁 구도는 이 사회가 얼마나 청년에게 잔혹한지를 다시금 보여줬을 뿐이었다.

〈빈집 살래〉가 활용하는 ‘청년’:

빈집을 살(buy) 수 없는 청년

1, 2회의 전개 과정은 방송 사례자 소개, 사례자가 꿈꾸는 집, 빈집 탐방과 구매 결정, 건축,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 시내 빈집을 구매한 후 재건축해 ‘서울 시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 가능하다.

그러나 3회는 다르다. 〈빈집 살래〉의 ‘사다(buy)’를 할 수 없는 이들, 즉 청년의 모습을 조명한다. ‘지·옥·고’에 처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세어 하우스를 만들겠다” 선포한 후, 개조할 한옥을 보여준다. 이후 한옥 세어 하우스에 들어올 이들을 무려 경쟁 프레젠테이션, 즉 오디션을 시킨다.

빈집을 사서(buy) 살아가는(live) 자본을 가진 이와 그렇지 못한 이가 있으니, 빈집을 세어 하우스로 만들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집을 제공한다는 점은 그래도 현실과 타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세어 하우스 입주 과정은 현실과 타협은커녕 청년 기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청년들은 일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특목고 입시 열풍으로 중학교 때부터 경쟁에 치였고, 대입 경쟁은 물론이고 입사 경쟁까지 치열하게 치렀다. ‘건국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는 살아가기 위해 평생을 경쟁했다. 그 경쟁을 위해 지·옥·고에서 살아가는 것도 감내한다. 그러나 방송은 그 청년이 안타깝다며 세어 하우스를 만들고도 그 세어 하우스에 잠시 입주할 청년을 다시 경쟁으로 선발했다.

방송은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 낸 서류들을 검토를 한 후 3팀을 선발, 경쟁 오디션을 하는 모습까지 전부 방영했다. 각기 절박한 이유가

있는 청년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활용도를 내세우며 열성적으로 경쟁 오디션에 임한다. 1, 2회의 출연자들이 왜 집을 갖고 싶은지, 집을 살 돈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고 끝났다면 청년들은 욕망하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들의 생활고 전반, 살고자 하는 열정, 집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자신들의 쓰임새까지 다 살살이 드러낸다. 앞선 출연자들이 돈으로 집을 샀다면, 청년들은 그야말로 열정과 능력, 인생 스토리를 팔아야만 집에 잠시라도 있어볼 기회를 얻었다.

청년 3팀이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열과 성의를 다한 PT는 방송에 15분도 채 나가지 않았다. 아니, 15분씩이나 나갔다. 이 15분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시청자들이 청년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인가. 청년들이 이렇게나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혹은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쯤은 해야 한다는 걸 표현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승자 한 팀이 결정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빈집 살래〉는 3회 초반, 청년들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하는 사회구조를 비판하지만 결국 본방송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은 현실을 반영한다”라는 명제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면, 성공했다.

〈빈집 살래〉가 활용하는 ‘청년’:

빈집에 살(live) 수 없는 청년

세어 하우스 입주자를 선정한 후의 방송 모습은 빈집을 살(buy) 순 없어도 잘 살(live)려는 청년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경쟁

을 통과하고도, 살아가기가 힘들다.

입주자로 선정된 동양미술 전공 학생들은 작업실로 꿈꾼 지하 공간을 잃고,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 대부분을 전면 수정하게 된다. 작업 공간이 필수적이기에 그 공간을 위해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엄청 충격을 받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방송은 역경을 딛고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 입주자들의 전공을 살려 벽화를 그리고, 페인트칠을 하며 집을 꾸며나간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은 판타지가 아닌 현실 생을 살아가려는 노력이라 와닿는다.

그러나 충격은 그 뒤에 다시 찾아온다. 엄격한 서류 심사와 경쟁 PT, 지하 공간을 잃고도 벽화를 그리며 방송 분량을 채운 이들의 현실은 방송 종료 2분 전에 나온다. 이들은 최장 4년밖에 살지 못한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6만 원(아마도 관리비는 별도일 테지만)을 내면서 2년을 산 뒤 재계약 후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이다. 방송 초반에 “매번 재계약이 걱정된다”, “계속 이사를 하는 게 지쳤다”라는 청년들의 인터뷰가 무색하다. 일반 전월세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세어 하우스기에 평생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이해한다. 그러나 일반 전월세 계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조건을 아름답게 포장한 건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1, 2년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고통받았고, 분노했다. 그래서 서류 심사, PT 면접을 통과하고 집에 열정을 쏟았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2년, 재계약 시 추가 2년의 동일한 주거 기간이다.

이 동일한 조건을 방송 초반에 밝히고 법에서 정한 2년(추가 시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청년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다면 납득이

되었을 수 있다.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고, 적어도 법 아래에서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야 했다. 그러나 방송은 앞서 계약 만료 후 갈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준 후 마지막에야 잠깐 자막으로 ‘사실 이 세어 하우스도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는 기만이다.

나가며

20살 후반부터 월세, 세어 하우스, 기숙사, 고시원, 준하숙 등 살아보지 않은 형태가 없다. 그렇기에 시청자지만 동시에 청년으로서, 〈빈집 살래〉에 나온 청년들의 모습에 공감했다. 동시에 분노했다. 〈빈집 살래〉라는 방송이 생각하는 청년은 이 사회가 생각하는 청년의 고루한 이미지와 다를 바 없었다. 갈 곳 없고, 고통받지만 열정 가득한 이들. 이 일차원적인 해석 아래, 방송에서는 결국 그 어떤 방식으로든 집에서 살아갈 수 없는 청년의 현실만이 남았다.

가난하고 고된 청년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고, 심지어 그 어떤 효용도 얻을 수 없는 ‘청년 가난 포르노’는 이제 사절이다.